월요대담

제8대 총장 공 영 일

"제3과학-테크노파크 유치에 승부걸겠다"

경쟁의 원리 도입…학교 지원 원칙과 능력 따라 차별화

집단이기주의 용납 안돼…필요하다면 행정력 동원할 터

안팎으로 우리 학교의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대로는 2류는 고사하고 3류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극단적인 비관론마저 비등한 현실이다. 지난해 8월 27일 한의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조영식 총장이 전격 사퇴한 후 총장선출은 우리 학교가 당면한 가장 큰 숙제였다. 교수들의 찬반투표로 공영일 교수가 78.5%의 지지율로 피선되었고, 총장선출문제는 일단락되었다. 우리 학교의 재도약에 경희 가족 모두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본사 김중석 기자가 총장실에서 공영일 총장을 만나 우리 학교의 당면 문제, 거탑을 바라보는 시각, 학교 발전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편집자註〉

—총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특별하고 중요한 시기에 총장직을 맡게되어 책임감부터 먼저 느낍니다. 지금의 총장직은 시대적 상황이 전인적인 총장상을 요구하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작년은 참으로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1학기때는 어김없이 등록금 투쟁이 있었고, 2학기에는 한의대 사태까지 발생해 학교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직원들조차도 스스로 아무것도 한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너무 쉽게 나와 적잖은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사태 수습은 수습이고 새로운 사업은 사업대로 기획하고 추진해야 하는데 모든 것을 한의대 사태 핑계만 대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태도는 무사안일에 빠진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허송세월 보낸 느낌

=중요한 시기에 허송세월을 보낸 느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위여건이 다릅니다.

언론에 일부 보도되었듯이 학교도 의욕적인 사업을 준비중이고 경희 구성원들의 합의도 이루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못했던 일은 올해 두 배로 일해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지명도가 떨어지면서 내부적으로 비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것은 어느 특정부분만을 꼬집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총체적 위기로 표현하는데 총장님은 현재 우리 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경희 가족의 경집력이 아쉽습니다. 파벌이 형성되어 있다거나 심각한 갈등 구조가 상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목과 갈등이 없는 것만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화합과 협동으로 내부의 힘을 한데로 모으는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화합과 협동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최선의 방법이겠지요. 학생들의 요구를 땜질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소모만 클 뿐 진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학교가 적극적으로 정책안을 마련, 홍보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투명한 행정이 구성원의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고 그 바탕위에서 화합과 협동은 자연스럽게 싹틀 것입니다.

—화합과 협동의 측면에서 보자면 동문은 경희의 구성원입니다. 인의 책임도 있겠지만 학교와 동문회도 짊어져야 할 멍에라 하겠습니다. 동문회 활성화를 위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학교의 가장 큰 자산은 동문입니다. 오늘의 재학생은 내일의 동문입니다. 제가 직접 동문을 찾아다니고 동문회와의 접촉에서 홍보실이 창구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동문회와 학교가 유기적인 관련을 맺어 동문회가 학교의 가장 큰 자산이 되도록 발전해 생각입니다. 그러나 동문회 활성화는 일차적으로 동문회의 문제이지 학교가 이래라 저래라 적극 간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학주보) 졸업호를 보면 학교 행정 공개화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박명광 기획관리실장님이 행정을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시원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학생기자들이 쥐재하면서 가지는 가장 큰 어려움은 직원들이 무슨 보물단지라도 되는 듯 정보를 움켜쥐고 잘 알려주지 않는데 있습니다. 결국 우리 학교 정책을 경화가족이 모르는거죠. 비공개 정책에 익숙한 직원들의 반발은 없었는지요.

개혁없이 살 수 없어

=일부 반발이 없을 수 없었겠죠. 그러나 개혁과 변화없이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개혁과 변화의 과정에 따르는 진통은 감내해야겠지요. 전반적으로는 교수, 직원들이 수용하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기사에도 나왔지만 그러한 결론은 수많은 회의를 거쳐 도출되었습니다. 이제 실행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개방화 국제화와 물결이 거세집니다. UR타결로 교육개방도 눈앞에 닥쳤습니다. 개방이라는 말은 아직은 기회와 진출이라기 보다는 위기와 피해라는 의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방은 경쟁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하나씩 나눠먹기식은 곤란합니다. 개방 시대에는 기본적인 틀이 있고 거기에 승복만이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학교의 지원은 원칙과 능력에 따라 차별화할 것입니다. 천편일률적인 투자로는 학교 전체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정체의 우려가 높은데다 교육개방이 겹쳐 안팎으로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타개하고 제도약을 이룰 수 있는 전체적인 청사진은 마련되어 있는지요.

=치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학교마다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동서의학의 접목이라 할 제3의학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학교에는 동서의학 연구소가 있으며, 외래 한의대간 학사편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통합한 차병원에서는 한방을 주로 하고 양방을 보충하여 한·양방의 장점을 살리는 치료를 실시하기로 이미 내부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수원캠퍼스는 공대를 증식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수원캠퍼스의 입지조건은 산학연 협동단지가 형성되는데 최적입니다. 현재 테크노파크 유치를 둘러싸고 수원의 모대학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기필코 유치할 것입니다.

—학교지원의 차별화, 특정 단대 집중 육성은 소외된 집단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화합과 결집을 이루어내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집단 이기주의는 전체 사회를 좀먹는 병폐일 뿐만 아니라 그 집단에게도 오히려 손해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공정한 게임을 통해 능력과 노력에 맞게 성취하는 것이 모두의 이익입니다. 당장 눈앞에 공간이 하나 더 생기고 예산이 좀 더 배정된다고 해서 그 집단이 발전했다고는 볼 수 없으며 학교가 눈치를 보면서 한정된 재원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배분해서는 공멸만이 있을 뿐입니다. 집단이기주의는 결코 용납되어서 안됩니다. 여론을 수렴하는 정책과 집단이기주의를 용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확정된 정책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꼭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고는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개인이나 집단이 있을 것이고 합의를 도출하기는 진통이 따를 것입니다.

교과과정 개편 절실

=교과과정 개편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교수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신의 영역이 침해되지는 않을까 두려운 면도 있을 것입니다. 대학은 보수적 성향이 강한 사회입니다. 보수세력은 변화를 싫어하는 집단입니다. 교과과정 개편이나 연구업적 평가도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을 위해서 마땅히 실시되어야 한에도 거부하는 세력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교과과정 개편은 학생에게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고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우리학교는 많은 중복학과가 있습니다. 중복학과의 경우 서울과 수원의 발전상황이 고르지 않아 상대적인 박탈감이 클 것입니다.

=미국에는 수많은 중복학과가 있지만 중복학과라는 말은 없습니다. 두개의 캠퍼스를 가진 학교는 제2캠퍼스에 제1캠퍼스에는 없는 학과가 발전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서울은 서울이고, 수원은 수원입니다. 문학이나 자연과학 등의 기초학과는 어느 캠퍼스에나 다 있어야 합니다. 대학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학부는 다 갖고 독자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수원캠퍼스는 교통편이나 캠퍼스 타운에서 생활하기가 불편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훌륭한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부총장 재직 시절에도 바쁘셨겠지만 총장 취임후에는 좀처럼 개인시간이 나기 힘들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가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예전에는 골프를 가끔 쳤는데 그만 뒀습니다. 주말에 가까운 산을 찾고, 아침에 30분정도 산책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총장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구미가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미의경우 경영자 총장, 기업체로부터 돈 잘 끌어오는 총장을 요구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은 무엇입니까.

교수에게 신뢰받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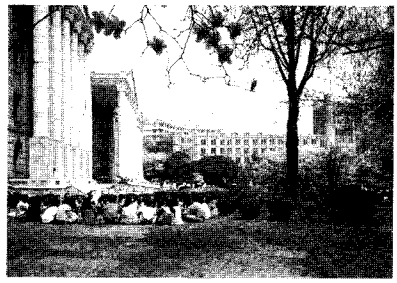
=총장은 무엇보다 교수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 직원과 언제 어디서든 스스럼 없이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학이 우수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가질때 자금동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훌륭한 사업 계획안이하나의 상품이지요. 대학이 제시한 계획안에 근거를 두지 않은 기업의 자금지원은 결단 화려한 것이지요.

—총장님께서는 외국어대학 학장, 국제 교류위원회 위원장등 두루 보직을 거쳐섰고, 6년간의 부총장을 거쳐 총장에 취임하셨습니다. 그동안 보직을 맡으면서 가졌던 생각과 앞으로의 각오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6년동안 부총장을 맡으면서 과를 돌보지 못했고, 개인적인 연구도 못한 것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임기 3년은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중석 記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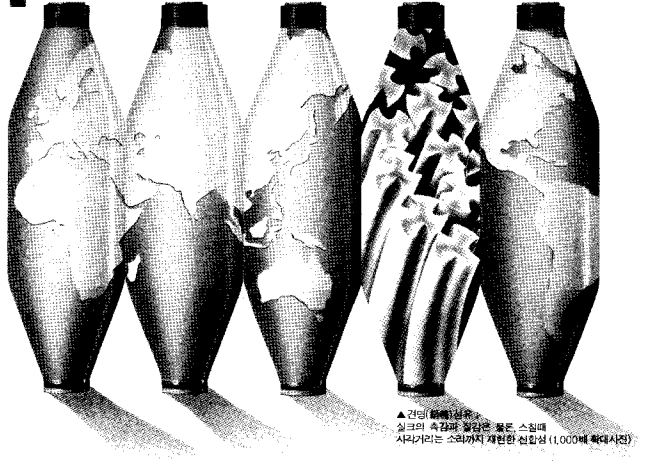
◇공개행정, 대학 구성원들의 화합과 협동을 역설하는 공영일 총장. 공 총장은 임기 3년이 좋은 기회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약 력

해군사관학교 졸업
서울 문리대 문학사
하와이대 문학석사
경희대 문학박사
해군사관학교 부교수
국방부 연구관
한국영어교육학회 회장
경희대 사범대 교수
영어교육학과장
시청각교육원장
외국어대학장
국제교류위원회 위원장
기획위원회 위원장
서울캠퍼스 부총장
총장

창립 70주년 1924~1994

21세기 한국의 섬유산업—, 삼양의 첨단기술이 先導하고 있습니다



▲건설용 [화학]섬유 : 싱크의 촉감과 월길은 물론, 스침때 사라거리는 소리까지 재현한 선합섬(1,000배 확대사진)

수출한국의 기둥 섬유산업-그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한국의 섬유산업은 최근 개발도상국의 맹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출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폴리에스텔 섬유 메이커인 저희 삼양사는 섬유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단 하나, 끊임없는 첨단기술의 개발—. 그것은 바로 한국 섬유산업 리더로서의 책임입니다.

천연섬유 모방의 합섬에서 이젠 초월하는 신합섬으로!

이름조차 낯선 항균방취(抗菌防臭)섬유, 축열섬유, 초극세사, 이형단면 섬유, 미다공질 섬유, 고수축 자기신장 섬유 등 첨단섬유는, 천연섬유에는 없는 새로운 형질과 촉감을 가진 새로운 합성섬유 즉 신합섬(新合纖)으로서, 이 모두가 삼양의 기술이 선도하는 제품들입니다.

치열한 기술전쟁 시대에 대비하는 저희 삼양그룹의 『중앙연구소』, 『의약연구소』, 『선일연구소』 등—. 신물질·신소재의 무단한 개발은 물론, 2천년대 세계 5대 메이커를 목표로 삼양은 매진하고 있습니다.

◉삼양사는 파키스탄, 베트남 등에 합작회사를 설립, 해외 생산거점을 통한 세계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사진 : 파키스탄 소재 Dewan Salman Fiber 합작회사)

삼양그룹

*주식회사 삼양사(化纖, 식품, 사료, 石油, 환경사업) *삼양종기주식회사 *선일포도당주식회사 *삼남석유화학주식회사 *신삼화섬주식회사 *신천북분주식회사 *천북투자금융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양메디케어 *디원 삼민 피아이 *삼양그룹연구소 *양명회 *수당장학회